



濟州의 산 樹木標本場을 만든다.

徐福牧場, 「自然植物園」을 찾아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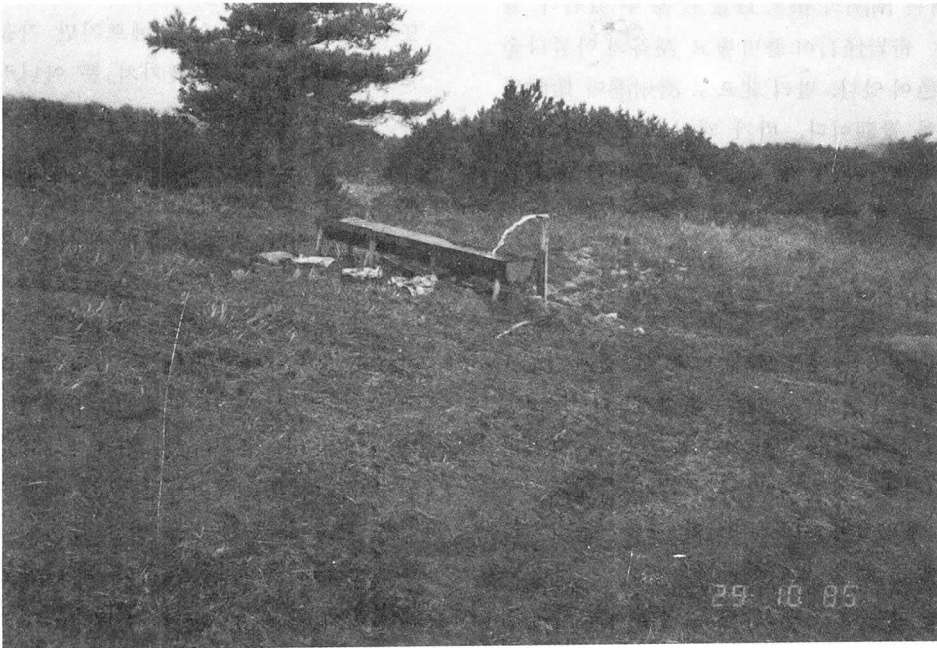
濟州 걸음이 많진 않았지만 4~5년에 한번씩은 바쁜 걸음으로 가게 된다. 이번에도 当日치기 비슷한 걸음으로 날아가야했다. 정녕 走馬看山格이다. 晩秋의雪嶽이나 鷄籠, 혹은 伽倻山을 찾을까 했었는데 照準이 바뀐 셈.

濟州 飛行場에서 택시로 西牧浦行 第2橫断道路에 올라 한참 가다 左廻轉해서 잘 포장된 漢拏觀光道路를 따라 4km쯤 直行하니 들던 말 그대로 600m 가량의 非鋪裝路邊에 管理人 事務所格인 大型BUS가 보이고 漢

拏山 쪽으로 徐福牧場이 있었다.

겨우 20분쯤 걸리는 20km의 距離다. 이 길을 따라가면 道立 畜産放牧場과 漢拏教育 研修院(86年 竣工), 그리고 觀音寺가 나온다.

늦가을까지 일꾼들과 草地서 수확된 소들의 겨우살이 준비를 끝내고 바쁘게 서울 等地로 往來하면서 特色있는 自然植物園의 靑寫眞을 그리고 있는 徐福牧場主이며 國立公園協會 濟州



99계곡서 2km나 파이프라인으로 건설된 자연수 上水道

支部長이기도 한 徐文洙(64)씨는 육중한 몸을 흔들면서 맞아준다.

牧場名은 不老草캐러 온 徐市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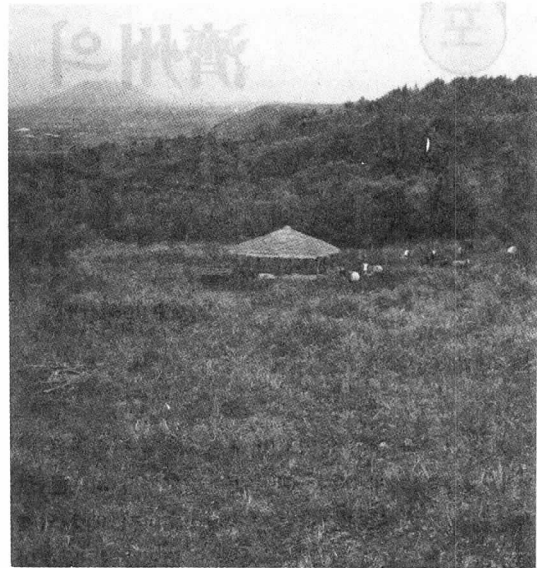
거울의 짧은 太陽빛이 아쉬워 들은 修人事도 빼고 약8만坪(실평수는 10만坪 정도)의 自然林속을 걸었다. 옛날 秦始皇이 不老草를 求하기 위해 童男童女 5백 쌍을 거느리고 蓬來國(한국·일본)에 보낸 使者 이름이 바로 徐福(一名 徐市)이다. 西歸浦의 正房瀑布와 日本和歌山縣 新宮市에는 「徐市過處」란 그의 通過碑文이 있었다 한다. 극히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山길을 따라 가니 물이 貴하기로 이름난 이 濟州山 골짜기에 흥청망청한 물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처음부터 食水確保에 着眼하여 굵직한 “파이프 라인” 建設에 들어가 約 2km 떨어진 深山溪谷에서 流入시켰다는데 물맛이 펍 좋았다.

한時間쯤 올라가니 標高 650m 쯤이나 되고 行政区域은 濟州市 吾羅洞, 漢拏山의 중턱이다. 한 겨울에는 南國의 積雪 珍景도 볼 수 있단다. 높은 곳에는 奇岩怪石이 즐비했고 溪谷의 아름다움 또한 特色이 있다. 멀리 北으로 濟州港이 俯瞰되는 雄壯한 景觀이다. 비가 개이고 亂雲이 흐터지며 무지개가 漢拏와 포물선을 그리는 장관을 이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 한다.

왕벚나무와 藥草의 群落

목장의 초지를 조성하다 보니 이 곳에는 흔히 不老草라고 불리우는 淫羊藿이란 약초 등 온갖 약초들이 무수히 群落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몇 百種(정밀조사중)이나 되는 野生草花가 군데 군데 자리잡아 마치 사람이 가꾼 듯 잘 분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徐씨는 너무나 기쁘고 한편 아깝기도 하여 전문가를 초빙해서 자문을 받아 희귀한 식생이 있는 곳을 피하여 축산에 알맞은 일정한 곳에 목초지를 정하고 개간했다. 지금은 일본의 國花



牧草 개간지와 방목장

가 되어 버린 櫻花(櫻花 = 日本사쿠라)의 原生種인 왕벚나무(柰=벚내, 學名 *Prunus yedoensis* MATSUMURA)가 많고 보리수나무과의 보리수나무(學名...*Elaeagnus umbellata* THUNB) 또한 무척 많은데 꽃도 예쁘지만 가을의 붉은 열매도 아름답다. 觀賞가치 뿐 아니라 열매들은 모두 甘味로와 食用으로도 좋다.

日本の 自然植物園도 보고 學者초빙

徐씨는 지난 여름 任慶彬 박사(분회 부회장)의 현지 답사 자문도 받고 전 世宗大學 식물학 교수인 崔榮典씨의 학술적인 정밀조사를 받아 이 지역을 自然植物園으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에 들어 간것. 그는 일본 仙台市 青葉城內에 있는 東北大(舊 東北帝大) 附屬 自然植物園을 둘러 보고 이 植物園이 自然狀態 그대로 造成된 것을 보고 크게 感銘을 받았다.

모든 自然을 原狀 그대로 잘 保存한 自然植物園을 만들어 自然속을 散策하면서 自然學을 하고 森林浴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그는 또 東京의 「이즈」(伊豆大島) 자연공원도 시찰했었다.



徐씨가 지난 여름 伊豆大島를 찾을 때 모습.

99谷과 連結되면 大自然植物園

어느 때에 가선 행정 당국의 협조를 얻어 인접한 植物의 寶庫인 九十九谷(아흔아홉골)을 連結하는 自然植物園이 이룩되면 세계적으로 손색없는 「대자연 식물원」이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濟州의 산은 비가 개이기 무섭게 溪谷물이 갈라 버린다. 아까운 물을 잘 간수하는 설계가 溪谷에 마련돼야 할 것 같다. 溜水池엔 이곳에 棲息하는 淡水魚도 기르고 울창한 自然林의 巨木마다 鳥籠을 만들어 달아 언제나 새소리를 들게 한다든가 이곳의 열매를 먹기 위해 모여 들고 수렵기엔 수난을 받는 많은 濟州평을 번식시키도록 노력한다든가 자연을 사랑하는 그의 꿈은 말이 없었다. 소주와 「淫羊藿」으로 빚은 술을 한잔 마셨더니 몇 시간 동안의 피로가 한꺼번에 가신듯 상쾌하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식물원 현황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植物園 現況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植物園은 다음과 같다
① 林業試驗場이 1922년에 설립한 洪陵樹木園(서울 東大門區 淸涼里洞山 1 · 面積 8.0ha · 種數 2,000種 · 腊葉標本 14,000點)

- ② 金剛植物園(1966年 · 設立者 鄭泰星 · 釜山市 東萊區 長箭 2洞 山45 · 面積 19,448ha · 種數 2,300種).
- ③ 冠岳植物園(1967年 · 設立者 서울大農大 · 京畿 安養市 石水洞 山4 · 面積 722ha · 種數 1,000種 · 腊葉 標本約 8萬點)
- ④ 千里浦樹木園(1971年 · 設立者 Carl Ferris Miller 한국명 閔丙渴 · 忠南 瑞山郡所遠面 魚港里 · 面積 100ha · 主植物=觀賞樹 특히 Ilex (400種 이상), 매자나무, 철쭉 · 木蓮類, 針葉類)
- ⑤ 虎鳴高山 植物園(1981年 · 設立者 · 韓國電力 · 京畿 加平郡 加平邑 · 面積 11,07ha · 主된 植物 · 觀賞用 高山植物).

以上の 우리나라 식물원 현황에서 보면 서울 京畿에 3個所, 忠南 1, 釜山 1의 地域 分布이다.

世界의 樹木園 現況

山林廳에서 1984년에 조사한 統計에 의하면 世界의 樹木園(植物園) 現況은 88個国에서 809個所나 되며 美国이 149個所로 으뜸이며 다음이 蘇聯 110個所, 英國 44, 獨逸 45, 東獨 16, 佛 32, 伊太利와 日本이 各 30, 스위스 19, 오스트렐리아 17, 印度 13, 中共과 白耳義가 各 9, 台灣 2, 아르헨티나 · 브라질 · 칠레가 各 6, 네델란드 22, 폴란드 14, 체코 25,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各 4, 에지프트 6, 南阿共 15, 뉴우질랜드가 8個所인데 世界의 이統計는 1977年の 것인데도 이 속에는 우리나라 것은 單 1個所 뿐으로 나타나 있다.

어떻든 우리나라는 統計上으로 봐도 貧弱한 狀態이고 부끄러움을 痛感하겠다. 徐牧場主가 自然植物園의 遠大한 꿈을 實現하는데는 많은 時間과 投資와 努力이 所要되겠지만 自然을 그대로 살려 만든 植物園이 觀光 濟州에 登場한다는 것은 植生學的인 見地에서나 教育面에서도 큰 關心을 모으게 하는 일이다. (珠)